

## 화장과 인간의 에로티시즘

정복희<sup>†</sup>

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

### The Make-up and the Humanbeing's Eroticism

Bock-Hee Jung<sup>†</sup>

Dept. of Apparel Design, Chungcheong College  
(2008. 4. 20. 접수/2008. 5. 19.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o study was to find out relationships between the Make-up and the Humanbeing's Erotic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ke-up is the sexual display for the tribes propagation and maintain and is derived from the eroticism to seduce the opposite sex. 2. The red color of Yeonji make-up makes a great contribution to sexual sensibility and is effective to attain the solemn and original desire.

**Key words :** Make-up(화장), Yeonji make-up(연지화장), Eroticism(에로티시즘), Sexual display(성적과시), pairing color(짝짓기색)

### I. 서론

인간의 신체는 사회 속에서 '나'란 존재를 드러내 주는 유기체인 동시에 개성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역사적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장식을 가함으로서 그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유인이나 흡인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성적(性的)인 에로티시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화장도 이러한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신체에 이차적·의식적으로 색·광택·형(形) 등을 부가하여 본래의 것을 바꾸는 일이라 하겠다.

에로티시즘이란 원래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주로 육체적인 사랑, 즉 성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하였고 성적인 만족을 위한 호색적인 성향을 뜻하게 되었다. 이는 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육체적인 인간의 본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성이 함께 승화된 표현성을 의미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Sigmund Freud)는 시각에 의해 성적쾌감을 얻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성을 형성하는 기본 본능들 중의 하나라고 보았으며, 플루겔(John Carl Flugel)과 버글러(Sabine Bergler)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복식심리에 적용시켜 복식의 착용동기를 성적 본능과 연관시켜 연구였다. 레버(James Laver)도 의복의 원칙을 계급 제도적 원칙, 유용성의 원칙, 유희의 원칙으로 구분하고 의복 착용의 주요 원칙이 에로티시즘에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의복의 일종이므로, 인간이 표현하고자하는 미적인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화장의 개념과 화장의 기원, 그리고 연지화장의 색과 관련된 인간의 에로티시즘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화장의 개념

역사적으로 원시시대부터 白·黑·赤 등의 기본 안

<sup>†</sup>Corresponding author: Bock-Hee, Jung  
E-mail: jbh@ok.ac.kr

료가 사용되어 온 화장은 구석기 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별, 지역, 민족에 관계없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주술신앙, 성적인 표시나 보호, 연령 계급 경력표시, 보호 보은이나 은폐·위장 등 다양한데, 크게 본능적(性的, 美的)·실용적(防衛, 보호)·신앙적·표시적(年級·계급·婚否·部族신앙·경험)으로 분류<sup>1)</sup>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화장개념은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적 효과’를 의식한 것을 말한다. ‘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절대성이 있을 수 없고 상대성·계층성·시대성·주관성 등<sup>2)</sup>이 개입되면서 서로 혼용되어 왔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조화’에 있으므로 화장이란 선천적인 자신의 용모를 시대나 사회 또는 그 문화권 내에서 어떠한 필요에 따라 선별·선호·선택된 ‘미’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서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계통의 말에는 화장(化粧)과 미용(美容)이 있다. ‘화장’이란 단어는 원래 외래어로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개화기 이후에 신식 화장품이 수입되면서 사용된 용어<sup>4)</sup>로 가화(假化)·가식(假飾)·꾸밈 등의 뜻을 지닌다.

‘화장’에 해당하는 漢字語에는 가상(假相)·기장(氣裝)·현상(懸想)·화생(化生)<sup>5)</sup>·면식(面飾)·면장(面粧)·면장(面牆)·장식(粧飾) 등 다양하나, 면식이나 면장(面粧)이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말에는 장식(粧飾·裝飾), 단장(端粧·丹粧), 야용(冶容) 등이 있고 화장품은 장식품(粧飾品)·장렴(粧簾)·장구(粧具)라고 했다. 다양한 표현에 따른 의미는 약간씩 달라서, 얼굴 화장만을 가리킬 때는 야용, 몸단장에까지 이르면 단장, 일반적인 화장일 때는 장식(粧飾)이라 했고, 장신구까지 치장한 경우에는 장식(裝飾)이라 했다. 특히 옷차림마저 화사하게 하였을 때는 성장(盛裝)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화장의 농도에 따라, 옅은 화장인 경우는 염장(淡粧), 짙은 색조화장인 경우는 농장(濃粧)이라고 하였다.<sup>6)</sup> 이 밖에 혼례시의 신부화장을 말하는 응장(凝粧)이 있다.<sup>7)</sup>

또한 ‘미용(美容)’이란 ‘미장(美粧)’이라고도 하며, 얼굴이나 머리 등을 곱게 매만지는 일, 즉 용자(容姿)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을 총칭한다. 미용사법에는 ‘미용’을 “퍼머넌트 웨이브·결발(結髮)·세발(洗髮)·염발(染髮)·두피처리(頭皮處理)·매니큐어·미안술(美顏術) 및 화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용모를 미려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3분하여 두부기술(頭部技術)·미장기술(美粧技術)·전신미용

(全身美容) 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양에서는 ‘화장’이란 말로 메이크 업(make-up)·또와레(toilet)·뷰티 케어(beauty care)·드레싱(dressing)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화장과 관련된 의미는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cosmetic)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청산행부(靑山行夫)는 “화장품은 영어와 불어로 코스메틱(Cosmetic)이며 독일어로는 코스메틱(Kosmetic)이다.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코스메티코스(Cosmeticos)’로서 ‘잘 정리한다’, ‘잘 감싼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코스모스(Cosmos)’란 원래 ‘질서 있는 체계’, ‘조화’를 뜻하며 무질서, 혼돈의 의미인 ‘카오스(Chaos)’의 반대개념이다.”<sup>8)</sup>라고 했다.

엄격히 말하면 화장의 기본 개념은 원래의 얼굴을 감추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감춘다’와 ‘보여준다’의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감춘다’는 것은 결점이나 약점을 카무플라즈(camouflage; 위장)한다는 것이고, ‘보여준다’는 것은 ‘감춘다’ 보다 적극적인 행위로서 새로운 자신을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맨 얼굴 그 자체가 전달하는 정보(印象)를 인공적으로 ‘감추어서 보여준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가화(假化)·가식(假飾)·가상(假相)·꾸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허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화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등 부정적인 인식이 끊이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9)</sup>

그러나 화장의 본질이 ‘외관을 장식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한 개체를 주목시키기 위한 것’<sup>10)</sup>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화장의 개념 규정은 시대나 문화권의 미의식에 기초를 두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개인의 심미안과 취향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II. 화장의 기원

‘화장’의 기원이 언제부터이며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류의 발생과 함께 그 징조가 나타나고,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도구와의 관련을 갖고 점차로 진보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볼 때, 인체의 두상(頭狀)은 얼굴과 머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머리는 그 형태(헤어스타일)에 있어 가변성이 있으나 얼굴은 불변이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채색의 힘을 빌리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다.

춘산(春山)<sup>11)</sup>은 “얼굴에 색을 칠하는 풍속의 기원은 구석기시대의 원시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무렵으로, 몸에 색을 칠하고 문신을 해왔으며, 또 이어 구석기시대 원시인 사이에서도 행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무렵 몸에 색을 칠한 이유는 수렵시 포획물을 추적해갈 때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지게 위장하기 위하여 · 자기에게 다가오는 적(敵)이나 동물을 무섭게 하기 위하여 · 주술이나 신앙 때문 등이었다고 했다. 또한 통구(樋口)<sup>12)</sup>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타스마니언)은 삼림에서 수렵을 할 때 황색과 흑색의 동물모양이나 독수리나 사자, 뱀 등 강한 동물의 모양을 몸에 그렸다고 했다. 이것은 동물로부터의 방어이며, 강한 것에로의 동경과 힘의 과시 등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몸이나 얼굴에의 채색은 주술적, 신앙적인 행위로서 일종의 암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赤)은 불의 색이고, 타오르는 태양의 색이며, 인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피의 색으로서 신비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므로, 적색을 악마를 물리치는 색으로 믿고, 눈 · 귀 · 코 · 입 등 몸의 구멍에 칠했던 것이다.<sup>13)</sup>

매장습관이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은 적갈색과 흑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으며, 뉴기니아의 어느 종족은 시신을 적갈색으로 채색하고 장식품과 함께 매장한다고 한다. 솔로몬 섬에서도 관(棺) 전체를 착색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여자들은 장송(葬送) 때 신체를 흑색이나 백색으로 칠한다고 한다. 파푸아·뉴기니아의 경우도 사자(死者)와 그 연고자의 피부를 백점으로 착색하는 습관이 있다.<sup>14)</sup> 이렇듯 사자(死)의 색인 흑색으로 착색하거나 신(神)의 색인 백색으로 채색하는 것은, 생(生)과 사(死), 산자와 죽은 자를 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통과의례상의 주술행위의 일환으로 보인다. 生者인 원주민들의 신체 도채(塗彩)도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의 이유는 각 부족 간의 식별(識別) · 의례에의 참가 증명 · 무도(舞踏) · 미적 장식 등 여러 가지로 생각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항상 백점토 · 적색 · 황색의 광토(鑛土)를 쟁거루 자루에 저장하고 있다가 축하할 때에는 전신에 바르며 전투를 할 때에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줄 배열을 결정, 신체 채색을 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방어와 의식 · 신앙 · 주술적으로 선택했던 채색은, 처음 실용성에서 비롯되었으나 차차 그리는 형태가 장식적으로 변모되고, 보다 강력함 · 좋은 모

양 · 아름다움 등의 미적 효과를 위해 변해간 것이다. 그것은 색이나 형의 가치가 아닌, 결과적으로 미(美)라고 생각하는 마음, 즉 미로서 선택한 것에 ‘미’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육제에서 동물 등의 가면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원을 원시민족이 행한 의식(儀式)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위장에서 변신 즉 본능적인 위장에서 미의식 표현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체의 형을 변경하거나 상흔을 내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화장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원시시대의 화장에서 보듯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것에 의해 행해진 문신도 그러한 화장의 하나이다. 문신의 경우는 육체 손상의 풍습, 기념기호(記念記號)나 부족계층 · 소속집단의 표시, 용기와 자력(資力)의 과시나 남존여비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sup>15)</sup> 이는 오늘날에도 미개발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문명사회에 있어서도 소속집단의 일원이라는 표시로서 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등 그 잔재가 남아있다.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채색이 일시적이며 가변성이 다양한 데 비하여 문신은 어느 정도 영구성을 띠기 때문에 고정적인식을 위해서는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Charles Dawin)은 “동물에 수컷 · 암컷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남녀가 있다. 이성의 주의(注意)를 끌기 위해 동물은 울음소리를 낸다. 그에 대해 인간은 화장이나 의복에 의해 이성의 주의를 끈다. 그래서 아름답게 화장하거나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사람이 소기(所期)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sup>16)</sup>”고 말했으며, 그밖에 건강상의 목적 즉, 풀쭉을 바름으로서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미를 추구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미를 추구함으로써 매일의 생활을, 나아가서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 만물은 나날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의 극점에 이르렀을 때 육체적으로 가장 풍부미(豊肥美)를 발휘하게 되고 용모 자체에도 젊음과 미가 넘치게 된다. 그러나 이 성숙기를 정점으로 성장(生長)은 멈추고 신체는 쇠퇴해 노화하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노화를 막는 방도로서 또는 어느 정도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고자 함이 미화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곧 ‘화장’의 출발이라는 견해<sup>17)</sup>도 있다.

‘미(美)는 늙지 않는 모양’ · ‘미로서 늙지 않는다’라

는 표현은 순자(荀子)가 성상편(成相篇)에 언급한 말이다. 인간은 항상 미를 구하여 늙지 않고 늘 젊고 아름답답기를 갈망하며 이는 인생의 영원한 바람이자 즐거움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사람 모두가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이다. 이러한 미를 추구하고 불로(不老)를 바라는 것에서 화장이 발달한 요인의 하나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타고난 본래 얼굴을 여러 가지의 미용술과 화장품을 사용하여 용모를 수정·보단(補短)하고 미화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다.<sup>18)</sup>

이렇듯, 화장의 발달은 인간 본래의 신체적 조건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미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인간이 화장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의미에서의 화장이란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원시인이나 미개인의 생활상에서 오늘날 우리생활의 전형을 유추하듯, 포유류의 생태는 인간의 삶의 원형을 유추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다윈의 견해도와 통하는 것이지만 중천지랑(中天志郎)은 사람들의 화장은 동물들의 '짜짓기 행동'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동물들도 외관의 색채와 장식으로써 '식별(識別)표시'를 하는데, 그것은 그 개체가 속한 종류를 나타내고(種類識別表示), 성별을 나타내며(性的識別表示), 연령을 나타내기(年齡識別表示) 위함이라고 한다.

'종류식별표시'는 종(種) 특유의 색채와 문양·뿔·이빨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리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요인이고, 또 이종간교배(異種間交配)를 방지하는 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적식별표시'는 번식기 특유의 색채(혼인색)·장식(생식깃털)·냄새(芳香腺分泌物)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유성생식(有性生殖)을 하는 동물에 있어서 암수의 만남이 짜짓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연령식별표시'는 갓 깎 새 새끼의 솜털, 포유류 새끼의 유아문양(幼兒紋樣), 멧돼지나 얼룩말의 줄무늬 모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에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보호를 구하기 위한 표시로서의 기능이 있고, 성숙한 동물에 있어서는 생식 가능 연령을 나타내는 제2차 성징적(性徵的) 변화의 표시로서 작용한다. 이들의 식별표시 가운데 화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성적식별표시'이다.<sup>19)</sup>

동물들은 종족유지를 위하여 배우자를 구하는 강

한 충동이 있고, 더욱이 자기 유전자를 보다 많이 남기기 위해 짝짓기의 기회를 최대화 하려는 본능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들의 성징 변화(즉 화장)는 생식행동(生殖行動)과 직접적으로, 즉 외적으로는 성적과시(性的誘示; sexual display), 내적으로는 성(性) 호르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색(婚姻色) (nuptial coloration)이나 생식깃털(nuptial plumage)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포유동물의 성피(性皮; sexual skin)나, 뿔 등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이로써 볼 때 동물의 성징 변화는 색채와 장식, 그리고 그 개체의 깃털과 모(毛), 피부 등의 변화가 주(主)이며, 사람처럼 외부에서 재료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화장은 여성이 주체인 것에 대해 동물에서는 성적과시(性的誘示)의 주역이 수컷이라는 것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우상대(配偶相對)의 선택권이 대부분의 경우 암컷 쪽에 있고(female choice), 암컷이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진화(성도태; 性淘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암컷의 경우, 장식이나 색채 변화가 적은 것은 배우상대를 선택하는 쪽이라는 점과 함께 많은 종류에 있어서 자녀양육의 주체가 암컷 쪽이러는데 있다. 자식을 기르고 지키기 위해 눈에 띄기 쉬운 색채나 장식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동물 세계와는 달리 남성의 경제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숭이 무리에서는 털색의 변화와 함께 털이 없는 부위의 피부색 변화가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들 무리는 얼굴·생식기 부위·유방 주변에 무모부(無毛部; 裸區)가 있고, 이 부분의 피부색은 번식연령과 번식시기(계절)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일본원숭이·아카게자루 등은 번식시기 前부터 얼굴·생식기 및 생식기 주변의 피부(性皮: sex skin)가 선홍색을 띠고 광택이 증가된다. 침팬지나 만드원숭이 등의 암컷은 성피가 조홍(潮紅)할 뿐 아니라 확실히 종양처럼 부풀어오르며, 게라다원숭이(Theropithecus gelada)는 앞가슴의 무모부가 선명한 붉은 색을 띠고, 또 수컷 벨벳원숭이의 생식기는 놀랄 정도로 선명한 청색으로 변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만드린(Mandrillus sphinx)이라는 원숭이 무리에서는 수컷의 얼굴이 적·청·등색(赤·靑·藤色)으로 채색되며, 같은 경향이 둔부에도 나타난다. 이들 원숭이류에서 보이는 피부색 변화는 피부 아래 혈관에 의한 발색(發色)이라고 하며, 삼림 속에서 번식 적기에 이성을 유인하는 짝

짓기 색(pairing color)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21)</sup> 이에 대해서는 대방욱부(大坊郁夫)와 신산진(神山進)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22)</sup> 그는 『인간 행동학(Manwatching)』을 쓴 모리스(Morris)의 말을 인용하여 화장에는 성(性)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로써, 더욱이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인할 인상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성적 과시(display)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번식기에 이르면 신체의 색채가 변하는 물고기는 그 변화로 이성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번식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 통상적으로 암컷 게라다 원숭이는 흉부(胸部)에 눈에 띄는 둔부(臀部)의 형태와 유사한 복사본을 갖게 되는데, 즉 둔부에 있는 성기(性器)의 색채와 같게 변화하며, 강도의 증감과 체도의 선명성도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수컷은 암컷의 흉부를 보고 성교(性交)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모리스는 ‘신체적 자기의태(身體的 自己擬態)’라고 부른다. 여성의 화장법으로서 적색계의 입술을 나타내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인공적’ 자기의태(自己擬態)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IV. 연지화장의 색채상징

채색화장에 사용되었던 기본색은 흰색과 붉은 색 그리고 눈썹을 그리기 위한 검은 색이었다. 분은 흰색의 상징적 기호이고 연지는 붉은 색의 상징적 기호라고 할 수 있는데, 붉은 색 연지화장은 흰색의 분화장보다 효과가 커 단장 혹은 흥장이 ‘붉게 꾸민다’는 뜻에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으로 전의(轉意) 될 만큼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화장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는 붉은 화장이 인간의 에로티시즘의 한 형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붉다’는 ‘불’에서 전성(轉成)된 것<sup>23)</sup>이고 한자(漢字) ‘赤’<sup>24)</sup>은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南方色이다. 붉은 색은 인류가 흰색과 검은색 다음으로 인식한 색이지만, 그 상징성은 흰색이나 검은색보다 강하다. 즉 붉은 색은 일반적으로 태양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중요한 상징적 기호로 이용하였으며 그 방법의 하나가 인체의 채색이다. 특히 인체에 색을 칠하는 채색은 영구적이고 불변적인 문신과 달리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부족이나 민족에 따라 그 사용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가 변천하였다.

한편, 빨간 순색의 경우 색의 이미지는 왕성한 것의 상징이며 태양·불·피의 연상에서 생명·정열·

양기(陽氣)·강렬·흥분·활동·희망·기쁨·행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면에 유아·위험·혁명·야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마귀의 호술 색으로서 고대부터 이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밝은 붉은색의 경우는 달콤한 뜻과 함께 놀이의 요소가 있고,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의 색으로서 꿈·수줍음·부끄러움·행복·건강·생명·결혼·봄·봄꽃·온화함·어림·젊음·청결·순정 등을 연상한다.<sup>25)</sup>

어느 언어에서건 ‘밝음’과 ‘어두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한다. 밤과 낮의 구별이 다른 어떤 색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며 대개는 이들 단어를 흰색과 검정을 가리키는 색 이름이 유래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색채 이름으로서의 빨강이 가장 먼저 생겨났다.<sup>26)</sup>

뉴질랜드의 원주민 여성들은 얼굴을 빨갛게 자토(赭土; 붉은 흙, 적갈색)로 채색하였고 타히티섬 사람은 검은 안료를 피부 속에 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다색(茶色)의 피부를 가진 마리오족 여성은 입술에 검은 문신을 했는데, 붉은 자토를 바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뉴헤브리데스諸島の 원주민들은 흑연을 얼굴에 발라 실제의 얼굴보다 검게 보이게 하였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체와 얼굴을 희게 바른다<sup>27)</sup>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듯 옛날부터 여성의 얼굴화장에는 흰색·검은색·붉은 색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인류가 이처럼 적색(赤色)을 좋아한 것은 태양이 주는 빛과 불이 곧 그들 생활의 유일한 근본이었고, 종교에 가까운 신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색은 사회권력과 정신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층계급을 가리키는 색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적색은吉한 색이라 하여 건축물이나 생활 주변 여러 곳에 칠하여 福을 구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주술적 의미와 약물적(藥物的) 의미로 사용되어 생활 습속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을 적색민속(赤色民俗)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례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부적(符籙)은 반드시 주색(朱色)으로 한다거나, 손톱을 붉게 물들이면 여러 병이 낫는다거나, 주사(朱砂)를 가지고 다니면 악귀가 침범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혼사 때 사용하던 청실홍실을 두르면 어린이가 병이 없다거나, 아들을 낳았을 때 금줄에 붉은 고추를 단다거나, 동짓날 팔죽을 먹으면 방역된다거나, 이불의 색을 잇꽃색과 쪽색으로 기본을 삼는다거나, 신부의 얼굴에 연지를 찍

는다거나<sup>28)</sup> 등등 오늘날까지도 적색민속은 民間에 널리 남아 있다. 또한 적색은 식별수단(識別手段)으로 사용되었는데, 호적에 붉은 줄을 긋거나 죄인을 붉은 글씨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관위(官位)에 따른 복제(服制)에서 상층계급의 색으로 적색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고대인들은 적색을 화장과 장신구에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신비한 생명력의 표현이기도 하고 타오르는 불에 의해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교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신체의 구멍을 통해 악마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색을 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성적감각(性的感覺)의 효과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시인은 생식기에까지 적색을 칠했다<sup>29)</sup>고 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침팬지나 원숭이 등 동물들의 생태를 연구한 동물학자들도 생식기(生殖期)(發情期 : sex season)에 입술·영덩이·앞가슴 등이 붉은 색으로 성징(性徵)이 변하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성적유혹(性的誘惑), 성적매력(性的魅力)의 과시(誇示)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발정기가 항상화(恒常化)된 인간은 발달한 성(性)문화를 갖게 되고 붉은색에 의한 이성(異性) 자극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고 있다.

## V. 화장과 인간의 에로티시즘

화장의 기본 개념은 수식(修飾)이며, 본질적으로 ‘감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두드러진 들어남’으로 귀결되는 일종의 자아 표현 행위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었던 화장이란 용어에 가화(假化), 가식(假飾), 면식(面飾), 가상(假相), 장식(粧飾), 미용(美容)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서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cosmetic’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에 ‘잘 정리한다’든지 ‘질서 있는 체계’라든지 하는 조화의 뜻이 담겨 있으며, make-up이나 beauty care, 또는 dressing 이란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화장은 얼굴의 아름다운 꾸밈(美化)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이성을 유혹하려는 욕망과 정숙성의 갈등이 나체를 의복으로 환원하게 되고 그때 의복이 절충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레버(James Laver)의 유혹의 원리(The seduction principle, Dress, Encyclopaedia Britanica, Vol. VII)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화장은 채색의 질고 열음으로 에로티시즘이 강화되며 그 관능정도가 달라진다. 얼굴의 험오감

이나 평범함을 약화시키거나 보강함으로서 이성으로 하여금 주목하게끔 유도하는 것 역시 에로티시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화장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에로티시즘과 관련이 깊다. 인간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가변적인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얼굴은 불변이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채색의 힘을 빌려야 했다. 이러한 채색은 생존을 위한 위장이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방편으로 주술적·신앙적 행위와 더불어 이용되었으며 채색을 비롯한 신체장식은 고대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극히 유효한 시각언어로서, 경사·전투·동속의식(同屬意識) 등 의식·의례에의 참가증명의 의미가 있었다.<sup>30)</sup> 화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차 이성(異性)에의 어필(appeal; 호소력, 매력)을 위한 에로티시즘적 성향의 강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에 초점을 맞춘 견해로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처럼 인간도 화장이나 의복으로 이성의 주의를 끈다는 진화론적 입장의 찰스 다윈의 주장이 있으며 중천지량(中天志量)이 말하는 동물들의 ‘짝짓기행동’에서 나타난 성징적(性徵的) 변화의 표시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대방옥부(大坊郁夫)와 신산 진(神山進)도 모리스(Morris)의 말을 인용, 화장은 성(性)을 강조하기 위한 신호로서,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인할 인상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성적과시(sexual display)라 했다. 그리고 짝짓기색(pairing color)으로서의 붉은 색은 에로티시즘의 효과가 크다.

또한 연지화장의 핵심은 ‘붉은 색’의 드러냄에 있고, 바로 이러한 욕구가 붉은 색 연지를 매우 일찍부터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으로 하여금 붉은 색의 어떤 특성이 화장으로 선호하게 하였는지를 유추하면 불·태양·피와 연관된 인식에서 비롯된 주술성과 생명력, 성적감각의 효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주술성은 인간의 육체적 무력(無力)에서 오는 존재의 불안감·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며 안전한 존립(存立)에 대한 염원이다. 생명력은 정열·양기(陽氣)와 관련된 혈색을 나타냄에 따른 활기 왕성한 아름다운 젊음의 발산이며 지속이다.

## VI. 결 론

이상으로 화장의 개념과 그 기원 그리고 연지화장의 색에 대해 고찰해보고 인간의 에로티시즘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가변성이 없는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채색, 즉 화장이 필요하였고 감춤으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행위는 에로티시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로티시즘을 바탕으로 한 미적 표현은 종족 번식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결국 화장이란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한 성적 과시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영속적이고도 안전한 개체의 번식과 존속에 바탕을 둔 에로티시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주술적 기능의 기반 위에 인류의 역사가 오래 지속되어 오면서 미적 기능이 더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지화장의 붉은색은 주술성과 생명력, 특히 성적감각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감각의 효과는 흥분·열정·유혹과 관련된 종족유지, 영속적인 생명의 존속(存續)에 유효하다. 따라서 인류가 붉은 연지를 화장에 선호하게 된 것은 인간의 이러한 엄숙하고도 근원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이며 에로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화장은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한 성적 과시로서 이성을 유혹하려는 에로티시즘에서 비롯되었다.
2. 연지화장의 붉은 색은 성적감각의 효과가 크며 엄숙하고도 근원적인 욕망을 달성하는데 유효하다.

## 참고문헌

- 1) 服裝文化協會 (1981). 『服裝大百科事典(增補版)』上, 文化出版局, p. 287.
- 2) 민중예술위원회 (1985). 『삶과 멋』, 공동체, p. 80.
- 3) 宋旼貞 (1991). 『우리나라 傳統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 顔術.
- 4) 宋旼貞, 앞의 책, p. 6.
- 5) 服裝文化協會 (1981). 『服裝大百科事典(增補版)』上, 文化出版局, p.287.
- 6)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82). 동아출판사.
- 7) 鄭容熙, 李炫沃 (1998). 「전통화장문화에 나타난 연지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6, p. 47.
- 8) 青山行夫 (1976). 『おしやれの文化史』, 平凡社, pp. 12-13.
- 9) Hiroto Murasawa (2002). 「치장과 변신을 위한 화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p. 5.
- 10) 中天志郎 (2001). 「動物の化粧」,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 『化粧心理學』, フレグランジャーナル社, p. 329.
- 11) 倉持喜久子 (2001). 「化粧の歴史」, 資生堂ビューティーサイエンス研究所編, 『化粧心理學』, フレグランジャーナル社, p. 297, 재인용.
- 12) 倉持喜久子, 위의 책, p. 297, 재인용.
- 13) 倉持喜久子, 위의 책, p. 297.
- 14) 城一夫 (1994). 『色彩博物館』, 明現社, p. 73.
- 15) 青木英夫 (1979). 『西洋化粧文化史』, 源流社, p. 17.
- 16) 青木英夫, 위의 책, p.18, 재인용
- 17) 久下司 (1996). 『化粧』, 法政大學出版局, p. 1.
- 18) 久下司, 위의 책, p. 2.
- 19) 中天志郎, 앞의 책, p. 329.
- 20) 中天志郎, 위의 책, p. 330.
- 21) 中天志郎, 위의 책, pp. 335-336.
- 22) 大坊郁夫, 神山進 編集 (2000). 『被服と化粧の社會心理學』, 北大路書房, p. 30.
- 23) 鄭호완 (1991). 『우리말의 상상력』, 정신세계사, p. 119.
- 24) 『說文』: 南方色也, 『釋名』: 太陽之色也, 『注』: 心色也.
- 25) 유태순, 조기여, 배현숙, 이화순, 신지현, 김영란 (2000). 『색채학』, 도서출판 성화, p. 85.
- 26) Eva Heller (1999). 이영희 옮김,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예담, p. 89.
- 27) 城一夫 (1994). 『色彩博物館』, 明現社, p. 89.
- 28) 조경래 (2000). 『천연염료와 염색』, 형설출판사, p. 42.
- 29) 桶口清之 (1982). 『化粧の文化史』, 東京國際商業出版社, pp. 10-11.
- 30) 城一夫, 위의 책, p. 74.